

解休의 脈因證治에 대한 研究

-『素問』註釋書와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生理學教室

朴勇浩 · 趙學俊* · 金昊顯

Pulse, Reason, Symptom and Treatment of Haeyok

-mainly referred to commentary of 『Somun(素問)』, 『Uihakyimmun(醫學入門)』-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Park, Yong-Ho · Jo, Hak-Jun · Kim, Ho-Hyun

We got some conclusion like below, after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mainly with commentary of 『Somun(素問)』, 『Uihakyimmun(醫學入門)』 about pulses, reasons, symptoms, treatments of HaeYok(解休).

The name of Haeyok was appeared 『Somun(素問)』, 『Youngchu(靈樞)』 for the first time, and from then 'Treatment From Pulse' was promoted into details.

About the Pulse of Haeyok, every doctor followed the 'chokmaekwansae(尺脈緩瀉)' mentioned in 『Somun · Pyounggisanglon(素問 · 平人氣象論)』. But the letter 'wan(緩)' in 'chokmaekwansae(尺脈緩瀉)' was translated not pulse but drooped skin in 『SomunKumsok(素問今釋)』.

On the reasons of Haeyok, we can lot out in detail like next: ① heat of liver and abdomen, lack of blood, ② declining Gi, little blood, ③ declining and little Gi of spleen, ④ Lack of Gi and Blood, ⑤ weak kidney energy, ⑥ nutritional vacancy, ⑦ no energy circulation from hardened kidney, ⑧ exogenous disease on void kidney ⑨ both weak meridian of liver, kidney. And it can be divided broadly into two groups: weak liver and kidney, declining and little Gi of spleen.

The symptoms of Haeyok is that patient feels cold, but really that is not cold, feels weak, really not weak, feels vigorous but not. So hardly be named, the members are exhausted, people get lazy, annoying, sick, and have no vitality.

Treatments about this, some prescriptions are suggested such as Baekhaptang(白合湯) from 『Naekyoungsupyoubanglon(內經拾遺方論)』, Yishintang(利腎湯) from 『Hwangiesomunsonmyoungbanglon(黃帝素問宣明方論)』. In 『Dongyanguihakdaesajon』, there's some treatment according to some reason: when we are lazy and don't know where is sick, use Haryoungmansudan(遐齡萬壽丹) or Shinsongijedan(神仙既濟丹), When it is from Liquor, use Galhwahaedokdan(葛花解毒丹), When from humidity use Gamichulbutang(加味朮附湯), from cold use Ganghwalchunghwatang(羌活沖和湯), and when it comes from instable menstruation, it will be good Gamisoyosan(加味逍遙散). And treatment principle from 『Uihakyimmun(醫學入門)』 is that "Circulate Gi and blood, be thin skin, prescribe exogenous disease over for void organs."

Key Words: Haeyok(解休), Pulse of Haeyok, Reason of Haeyok, Symptom of Haeyok, Treatment of Haeyok

* 교신저자 :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3) 649-1347 johohun@kornet.net

I. 序 論

解休의 病名은 『素問』 「平人氣象論」, 「玉機眞藏論」, 「刺瘡」, 「刺要論」, 「四時刺逆從論」과 『靈樞』 「論疾診尺」 등에서 나타나는데, 註釋家들은 그 病名의 의미에 따라서 ‘解休’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解休의 症狀에 대해서 王氷이 「平人氣象論」의 “尺脈緩瀼謂之解休”에 대한 註釋을 가하면서 처음 언급하였다. 그 후로 여러 주석가들이 解休에 대한 설명을 더하였으나, 臨床 綜合書에는 解休의 病名, 原因, 證狀, 治療 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매우 적거나, 『東洋醫學大辭典』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原因, 治療를 언급한 書籍도 있다.

『內經』에 대한 各家의 註釋을 모으고 全面的으로 研究해 놓은 『素問研究集成』¹⁾과 『靈樞研究集成』²⁾에 비록 解休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解休에 대한 설명이 여러 篇에 걸쳐 있으므로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素問』의 註釋書와 『內經拾遺方論』, 『黃帝素問宣明方論』, 『醫學入門』 등을 중심으로 解休의 脈, 原因, 證狀, 治療에 대해 比較·考察하고자 한다.

II. 本 論

解休의 病名이 『素問』에 5군데, 『靈樞』에 1군데에서 나오는데, 먼저 이를 각 편별로 나누어서 各家의 註釋을 비교하고자 한다.

1. 『素問·平人氣象論』의 “尺脈緩瀼謂之解休”³⁾

1) 王氷의 註釋

1) 朴晷 等. 素問研究集成.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1.
2) 朴晷 等. 靈樞研究集成.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6.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6.

王氷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尺爲陰部이니 腹腎主之라. 緩爲熱中하고 瀼爲無血하니 熱而無血이라 故로 解休이니 竝不可名之라. 然이나 寒不寒하고 熱不熱하며 弱不弱하고 壯不壯하니 停不可名이니 謂之解休也라.⁴⁾

尺은 陰部가 되니 腹과 腎이 主한다. 緩은 熱中에 해당하고 瀼은 無血에 해당하므로 解休이 되니 결코 (病을 일정하게) 이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약하지 않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아서 괴로워서 이름 지을 수 없음을 解休이라 이른다.

2) 馬蒔의 註釋

馬蒔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尺脈緩瀼은 緩爲熱中이요 瀼爲血少라. 熱而血少라 故로 曰解休이라. 解休者는 寒不寒하고 熱不熱하며 弱不弱하고 壯不壯하니 不可名狀을 謂之解休也라 ◎王注이 釋解休에 爲寒不寒 熱不熱者는 本刺瘡論의 足少陽之瘡에 有令人身體解休하니 寒不甚熱不甚이라.⁵⁾

尺脈이 緩瀼함은 緩은 熱中에 해당하고 瀼은 血少에 해당한다. 열이 있고도 혈이 적으므로 해역이라 한다. 해역이란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약하지 않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아서 어떻게 상태를 형용할 수 없음을 解休이라 이른다. 王氷의 註釋에는 解休이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刺瘡論」의 “足少陽의 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身體가 解休하게 하니 寒症이라도 심하지 않으며 熱症이라도 심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근본한 것이다.

4)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346.
5)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140.

3) 張介賓의 註釋

張介賓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尺主陰分하고 緩爲氣衰하고 瀯爲血少라 故로 當病解休이라. 解休者는 困倦難狀之名也라.⁶⁾

尺은 陰分을 主하고 緩은 氣衰에 해당하고 瀯은 血少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解休의 병이 된다. 解休이 란 피곤하고 게을러져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을 이름 지은 病이다.

4) 張志聰의 註釋

張介賓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此는 以尺部而候五藏之病也라. 緩爲脾脈이며 瀯主藏氣不足이라. 解休은 懈惰也니 此는 脾藏之爲病也라.⁷⁾

이는 尺部로서 五藏의 病을 살피는 것이다. 緩은 脾脈이며 瀯은 臟氣가 부족한 것이다. 解休은 게으른 것이다. 이는 脾臟의 病이다.

5) 『素問今釋』의 註釋

『素問今釋』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尺膚弛緩而澀滯하면 主氣血不足이니 當病肢體懈怠乏力이라.⁸⁾

尺膚가 弛緩되면서도 갈갈하고 滯하면 氣血이 不足한 것을 주하니, 마땅히 四肢와 몸이 게을러지고 힘이 모자라는 병이 된다.

【小考】

첫째 解休의 脈에 대해서 모든 註釋家들이 『素問平人氣象論』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그 脈에 대한 해석은 약간씩 다르다. 王氷은 尺脈은 陰部로서 腹과 腎이 主하고 緩瀯함은 緩은 熱中이며 瀯은 無血이니 尺脈이 緩瀯함은 腹과 腎에 熱中의 상태로 서 無血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張介賓은 緩瀯에 대해

緩은 氣衰이며 瀯은 血少라고 해석하였다. 張志聰은 緩은 脾脈이며 瀯은 藏氣가 부족함이니 解休의 原因이 脾臟의 病이라고 해석하였다. 『今釋』에서는 緩을 脈象으로 보지 않고 尺의 皮膚가 弛緩함으로 보았고 瀯脈은 氣血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解休의 證狀에 대해서 王氷과 馬蒔는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로 보았는데 다만 馬蒔는 “寒不寒 熱不熱”에 대해 不足陽의 瘧의 證狀에서 근본한 것이라고 하였다. 張介賓, 張志聰, 『素問今釋』은 “寒不寒 熱不熱”의 증상을 빼고 困倦, 懈惰, 肢體懈怠 乏力의 증상으로 표현하여, 대체적으로 게을러지고 힘이 없는 증상으로 보았다.

2. 『素問·玉機眞藏論』의 “冬脈……太過則令人解休 脊脈痛而少氣不欲言”⁹⁾

1) 王氷의 註釋

新校正에 云 按解休之義컨댄 具第五卷注라.¹⁰⁾

新校正에 이르되 “解休의 意義를 살피컨댄 제5권의 注에 갖추어있다.”라고 하였다.

2) 馬蒔의 註釋

若與此相反 則氣來如石之彈이니 此謂太過病當在外이니 令人熱不熱하고 寒不寒하며 壯不壯하고 弱不弱 而病成解休이라. ●愚釋解休之義本於王注이라. 然하니 王注本於刺瘧論中하야 有令人身體解休하니 寒不甚하고 熱不甚이라 故로 王注에 如此解之라.¹¹⁾

만약 이와 더불어 서로 반대가 되면 氣가 오는 것이 돌과 같은 彈脈이니 이를 일러 “태과의 병은 마땅히 밖에 있다.”고 하였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고 춥다고 느끼나 寒症이 아니며 썩썩한 것 같으나 썩썩하지 않고 약한 것 같으나

6)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118.

7)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8-79.

8)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p.98.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3.

10)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369.

11)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148.

약하지 아니하니 병들어서 懈休이 된다. 내가 懈休의 의의가 王氷의 註釋에 근본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王氷은 『刺瘡論』중에 근본하여 “사람의 신체가 해역하게 하니 춥더라도 심하지 않고 뜨겁더라도 심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王氷의 註釋에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3) 張介賓의 註釋

冬脈太過는 陰邪勝也라. 陰邪勝 則腎氣傷하고 眞陽虛이라 故로 令人四體懈怠하고 舉動不精이니 是謂 懈休이라.12)

冬脈이太過함은 陰邪가 이김이다. 陰邪가 이기면 腎氣가 傷하고 眞陽이 虛하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四體가 게으르게 하고 舉動이 정밀하지 못하니 이를 懈休이라 이른다.

4) 張志聰의 註釋

楊元如曰 診尺而知懈休 多汗之病은 在外요 視疾而知水飲黃疸之病은 在內라 故로 曰論疾診尺에 謂論證視尺하면 皆可以知病이라. 太過則氣外泄而根本反傷이라 故로 爲懈惰라.13)

양원여(楊元如)가 가로되 “尺을 진맥하니 懈休하고 땀이 많은 병은 밖에 있으며, 질병을 살펴봄에 水飲과 黃疸의 병이 안에 있음을 안다. 따라서 「논질진척(論疾診尺)」에 이르되 證을 論하고 尺을 살펴보면 모두 가히 병을 알 수가 있다. 太過하면 기가 밖으로 새어 근본이 도리어 傷하므로 늘어지고 게을러지게 된다.”고 하였다.

5) 『素問今釋』의 註釋

『素問今釋』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解는 同懈이니 解休은 卽四肢懈怠無力이라14)

解는 懈와 같으니 解休은 즉 四肢가 倦怠로와서 힘이 없는 것이다.

太過使人肢體倦怠하고 脊背經脈疼痛하고 少氣無力하고 不願講話라.15)

太過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肢體가 倦怠롭고 脊背의 經脈이 아프고 氣가 적고 힘이 없어서 말하기를 願하지 않게 한다.

【小考】

解休의 證狀에 대해서 王氷, 張介賓, 張志聰은 별도의 註釋이 없고 馬蒔와 『今釋』은 「平人氣象論」의 註釋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3. 『素問·刺瘡篇』의 “足少陽之瘡 令人身體解休 寒不甚 熱不甚”16)

1) 王氷의 註釋

寒不甚하고 熱不甚하며(陽氣未盛이라 故로 令其然이라.) 17)

陽氣가 아직 盛하지 않으므로 하여금 그렇게(춥더라도 심하지 않고 뜨겁더라도 심하지 않게) 한다.

2) 馬蒔의 註釋

解休者는 卽謂之曰寒 則寒不見甚하고 謂之曰熱 則熱不見甚是也라.18)

懈休이란 즉 寒症이라고 말하더라도 寒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熱症이라고 말하더라도 熱이 심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王氷의 註釋에 懈休의 意義를 해석한 것이 여기에서 근본한 것이다.

12)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110.
13)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
14)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p.104.

15)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p.107.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6.
17)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369.
18)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258.

3) 張介賓의 註釋

解는 懈也요 休는 跡也라. 身體解休는 謂不耐煩勞形跡困倦也라. 按解休之義컨대 王氏는 卽以寒不甚熱不甚으로 爲解이라. 然이나 細詳之컨대 若有不然이라. 觀其既云身體解休이라하고 復云寒熱不甚이라 하니 分明各有所謂하니 意本不同이라. 觀刺要論컨대 曰 髓傷則銷鑠胘酸하고 體解休然不去矣라하니 是豈非舉動解倦之謂乎아 及考休字컨대 不收於韻하고 若音爲亦하고 殊無意味라. 當從跡韻면 庶乎爲妥라.¹⁹⁾

解는 게으른 것이고 休는 자취이다. 身體가 懈休함은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形跡이 困倦함을 이른다. 解休의 의의를 살피건대 王氏는 즉 寒이라 해도 심하지 않고 熱이라 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미 身體가 懈休한다고 하였고 다시 寒熱이 심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각각 이른 바가 있으니 뜻이 본래 같지 않다. 「刺要論」을 살펴보건대 가로되 身體가 傷하면 銷鑠하고 정강이가 시리고 몸이 懈休한 듯하여 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舉動이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休의 글자를 고찰해 보면 韻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音은 ‘역’인 듯하지만 결코 의미가 없다. 마땅히 跡의 韻을 따르면 거의 타당할 것이다.

4) 張志聰의 註釋

解休는 懈惰也라. 少陽主初生之氣하니 病則生陽不升이라 故로 身體懈惰라. 少陽은 主樞하니 寒不甚하고 熱不甚은 樞象也라. 膽病者는 心中惕惕하여 恐人將捕之라. 少陽相火는 主氣라 故로 熱多하고 少陽所生에 病者汗出이라.²⁰⁾

懈休는 늘어지고 게으름이다. 少陽은 初生의 氣를 주하니, 병들면 生陽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신체가 늘어지고 게을러진다. 少陽은 樞를 主하니 추워도 甚하

지 않으며 뜨거워도 심하지 않음은 樞의 象이다. 膽病이 된 자는 心中이 惕惕하여 사람이 장차 잡으려고 할까봐 두려워한다. 少陽 相火가 氣를 主하므로 熱이 많다. 少陽의 生하는 巴에 病者가 汗이 난다.

5) 『素問今釋』의 註釋

『素問今釋』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解는 同懈이니 解休는 卽四肢懈怠無力이라²¹⁾

解는 懈와 같으니 解休는, 즉 四肢가 倦怠로와서 힘이 없는 것이다.

【小考】

解休의 證狀에 대해서, 張介賓은 王冰이 “寒이라 해도 심하지 않고 熱이라 해도 심하지 않다.”라고 해석함에 반대하였는데, 그 근거로 이미 “身體가 懈休한다.”고 하였고 다시 “寒熱이 심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분명히 각각 이른 바가 있으니 뜻이 본래 같지 않다. 또한 「刺要論」에 “身體가 傷하면 銷鑠하고 정강이가 시리고 몸이 懈休한 듯하여 가지 못한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이는 舉動이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志聰은 解休는 少陽의 樞에 해당하므로 “춤더라도 심하지 않고 덥더라도 심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今釋』은 앞의 註釋과 같다.

4. 『素問·刺要論』의 “刺骨 無傷髓 髓傷則銷鑠胘酸 體解休然不去矣”²²⁾

1) 王冰의 註釋

髓者는 骨之充이라. 鍼經에 曰 髓海不足이면 則腦轉耳鳴하며 胘酸眩冒라 故로 髓傷則腦髓銷鑠하고 胘酸하고 體解休然不去也라. 銷鑠은 謂髓腦銷鑠이요 解休는 謂強不强하며 弱不弱하며 熱不熱하며 寒不寒하고 解解休休然하니 不可名之也라. 腦髓銷鑠은 骨

19)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352.

20)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46.

2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180.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8.

空之所致也라.²³⁾

髓라는 것은 뼈를 채우는 것이다. 『鍼經』에 가로되, 髓海가 부족하면 腦가 돌고 귀가 울며 정강이가 시리고 어지러우므로 髓가 상하면 腦髓가 마르고 정강이가 시리고 몸이 懈休한 듯하여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銷鑠은 腦髓가 소삭함을 이르며 懈休은 강한 듯하나 강하지 않으며 약한 듯하나 약하지 않으며 뜨거운 것 같으나 뜨겁지 않으며 찬 것 같으나 차지 않으며 懈休한 듯하여 가히 이름할 수 없다. 腦髓가 銷鑠함은 뼈이 비게 되는 所致이다.

2) 馬蒔의 註釋

蓋骨在外하고 髓在內라. 髓傷則髓者는 骨之充이니 當骨空之內라. 髓銷鑠하고 足脢酸疼하며 大體가 解解然 休休然하여 不能行動而去也라. 所謂強不强하고 弱不弱하며 寒不寒하고 熱不熱하며 解休然하여 不可以名狀者耳라. 靈樞海論에 曰『髓海不足하면 則 腦轉耳鳴하고 脢酸眩冒하며 目無所見하고 懈怠安臥』者가 是也라. 蓋靈樞는 雖言腦나 而凡髓는 皆腦統之也라.²⁴⁾

대개 뼈이 밖에 있고 髓가 안에 있다. 髓가 傷하면 髓라는 것은 뼈를 채우는 것이니 骨空의 안에 해당한다. 髓가 銷鑠하고 정강이가 시리고 아프며 몸이 解解한 듯하고 休休한 듯하여 능히 행동하여 가지 못한다. 이른바 강한 듯 하나 강하지 않고 약한 듯 하나 약하지 않으며 추위를 느끼나 寒症이 아니고 뜨거운 듯하나 熱症이 아니며 懈休한 듯하여 가히 형상을 이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靈樞海論』에 가로되 “髓海가 부족하면 腦가 돌고 귀가 울며 정강이가 시리고 어지러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게을러져서 눕기를 편안히 여긴다.”는 것이 이것이다. 대개 『靈樞』는 비록 뇌를 말하였으나 무릇 수는 모두 腦가 통할한다.

23) 윤장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永注(中).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270.

24)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344.

3) 張介賓의 註釋

髓는 爲骨之充이요 精之屬이니 最深者也라. 精髓受傷이라 故로 爲乾枯銷鑠脢酸等病이라. 懈休者는 懈怠困弱之名이니 陰之虛也라. 陰虛則氣虛하고 氣虛則不能舉動이니 是謂不去也라. 按海論컨댄 所言髓海不足者는 病多類此라.²⁵⁾

髓는 뼈를 채우는 것이고 精의 屬이니 가장 깊이 있는 것이다. 精髓가 傷함을 받으므로 乾枯하고 銷鑠하고 정강이가 시린 등의 病이 된다. 懈休이란 것은 게으르고 困弱함의 이름이니 陰虛이다. 陰虛하면 氣虛하고 氣虛하면 능히 舉動하지 못하니 이를 일러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海論」을 살펴보면 髓海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病이 이와 비슷한 것이 많다.

4) 張志聰의 註釋

髓者는 骨之充이라. 刺骨太過면 則傷髓하니 傷則髓銷鑠而脢酸也라. 懈休은 懈惰也라. 盧良侯曰 骨穴이 多在節之交하니 節交會處有髓道라 故로 刺太過則傷髓矣라. 愚按鍼刺之要컨댄 首忌太過라 故로 曰 各至其理하여 無過其道라하니 而此篇은 先論其太過馬이라.²⁶⁾

髓라는 것은 뼈를 채우는 것이다. 뼈를 지나치게 많이 刺針하면 髓가 傷하니 傷하면 髓가 銷鑠하고 정강이가 시린다. 懈休은 늘어지고 게으른 것이다. 盧良侯가 가로되 “骨穴이 貫節이 교차하는 곳에 많으니, 骨節이 만나는 곳에 髓의 길이 있으므로 刺針을 지나치게 하면 髓가 상한다.”고 하였다. 내가 鍼刺의 요점을 살펴건대 지나침을 가장 꺼리므로 “각각 그 이치에 이르게 하여 그 道를 지나치게 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篇에서 먼저 그 지나침을 논하였다.

5) 『素問今釋』의 註釋

『素問今釋』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522.

26)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5.

應刺骨의에 不要傷及骨髓이니 髓傷則消燼不足하니 不能充養骨格이라 故로 出現脛脛酸痛하고 體倦乏力하고 舉動不能等症候라.²⁷⁾

骨을 刺鍼할 때에 骨髓를 傷하게 해서는 안 되니, 髓가 傷하면 消燼하여 부족하게 되니 骨格을 充養하지 못하므로 正강이가 시큰하고 困倦하며 몸이 倦怠하고 힘이 부족하고 舉動이 不能한 등의 症候가 나타난다.

【小考】

解休의 證狀에 대해서 王氷과 馬蒔는 “強하나 強하지 않고 弱하나 弱하지 않고 熱하나 熱하지 않고 寒하나 寒하지 않다. 解解休休해서 가히 이름할 수 없다.”라고 하여 『平人氣象論』의 註釋과 동일하다.

解休의 原因에 대해서 張介賓은 “全身이 倦怠困弱한 것을 말함이니 陰이 虛한 것이다.”라고 하여 陰虛라고 지적하였다.

5. 『素問·四時刺逆從論』의 “夏刺經脈 血氣乃竭 令人解休”²⁸⁾

1) 王氷의 註釋

血氣竭少라 故로 解休然하야 不可名之也라. 解休은 謂寒不寒하고 熱不熱하며 壯不壯하고 弱不弱이라 故로 不可名之也라.²⁹⁾

血氣가 衰少하므로 解休한 듯하여 가히 이름하지 못한다. 解休은 추운 듯하나 寒症이 아니고 뜨거운 듯하나 熱症이 아니며 썩썩한 듯하나 썩썩하지 않고 약한 듯하나 약하지 않으므로 가히 이름할 수 없음을 이른다.

2) 馬蒔의 註釋

夏時當刺孫絡이라. 若刺經脈이 어든 是는 以春時之所刺者어늘 而刺之於夏이니 則血氣至於竭하니 今人이 常[當]解休矣라. ◎解休者는 寒不似寒하며 熱不似熱하고 壯不似壯하며 弱不似弱이라 故로 解休而不可以名狀也라.³⁰⁾

여름에는 마땅히 孫絡을 刺針해야 한다. 만약 經脈을 자침한다면 이는 봄에 刺針하는 것이거늘 여름에 刺針하는 것이니 血氣가 고갈됨에 이르니 지금 사람들에게는 항상 解休하게 된다. 解休이란 것은 춥게 느끼나 寒症과 같지 않고 뜨겁게 느끼나 熱症과 같지 않으며 썩썩한 듯하나 썩썩한 것과 같지 않고 약한 듯하나 약한 것과 같지 않으므로 解休하여 가히 형상을 이름하지 못한다.

3) 張介賓의 註釋

悞刺經脈하니 所以血氣內竭이라. 解休者는 形跡困倦하야 莫可名之之謂라.³¹⁾

經脈을 잘못 刺針하였으므로 血氣가 안에서 枯竭한다. 解休이란 形跡이 困倦하여 가히 이름할 수 없음을 이른다.

4) 張志聰의 註釋

若再取之於經脈이면 則血氣內竭하야 而令人懈惰也라.³²⁾

만약 다시 經脈에서 取하면 血氣가 안에서 枯竭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늘어지고 게으르게 한다.

5) 『素問今釋』의 註釋

『素問今釋』의 註釋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夏天刺經脈 則將使血氣耗竭 使人倦怠無力³³⁾

27)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236.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9.

29)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中).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514.

30)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432.

31)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52.

32)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0.

33)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中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289.

여름에 經脈을 刺鍼하면 장차 血氣로 하여금 耗損되고 다하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倦怠롭고 힘이 없게 한다.

【小考】

解休의 原因에 대해서, 王氷, 馬蒔, 張介賓, 張志聰과 『今釋』에서 血氣가 竭絶되어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

6. 『靈樞論疾診尺』의 “尺肉弱者 解休 安臥脫肉者 寒熱 不治”³⁴⁾

1) 王氷의 註釋

없음.

2) 馬蒔의 註釋

蓋弱不弱하고 強不强하며 寒不寒하고 熱不熱이 爲解休이니 不能自寧이라 故로 安臥耳라.³⁵⁾

대개 弱한 것 듯 하나 弱하지 않고 強한 듯 하나 強하지 않고 차가운 듯 하나 寒症이 아니고 熱이 나는 듯 하나 熱症이 아닌 것이 解休이니 능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므로 눕기를 편하게 여길 뿐이다.

3) 張介賓의 註釋

尺肉弱者는 肌必消燼이라. 肉瘦陰虛이니 當爲解休이라. 解休者는 身體困倦이라 故로 欲安臥이라.³⁶⁾

尺脈이 弱한 자는 肌肉이 반드시 消燼하여 마른다. 肌肉이 마름은 陰虛이니 마땅히 解休하게 된다. 解休하는 자는 身體가 困倦하므로 눕기를 편안하게 여긴다.

4) 張志聰의 註釋

肌肉者는 五臟元眞之所通會이니 脾土之所主也라

故로 尺肉弱者는 主脾土虛 而解休安臥라. 解休者는 懈惰也라.³⁷⁾

肌肉이란 것은 五臟 眞元이 通하고 모이는 곳으로 脾土가 主하는 바이다. 따라서 尺肉이 弱한 자는 주로 脾土가 虛하여 解休하고 눕기를 좋아한다. 解休이란 게으른 것이다.

5) 『靈樞經校釋』의 註釋

解休은 指身體困倦하고 四肢懈怠無力的樣子라.³⁸⁾

解休은 身體가 困倦하고 四肢가 게으르고 힘이 없는 모양을 지칭한다.

【小考】

첫째 解休의 證狀에 대해서, 王氷은 설명이 없고, 馬蒔는 「平人氣象論」의 註釋과 같이 “弱한 것 듯 하나 弱하지 않고 強한 듯 하나 強하지 않고 차가운 듯 하나 寒症이 아니고 熱이 나는 듯 하나 熱症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고, 張介賓, 張志聰도 「平人氣象論」의 註釋과 같이 “解休하는 자는 身體가 困倦하므로 눕기를 편안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靈樞經校釋』에서 身體가 困倦하고 四肢가 게으르고 힘이 없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둘째 解休의 原因에 대해서, 張介賓은 陰虛라고 하였고 張志聰은 脾土가 虛한 것이라고 하였다.

7. 『內經拾遺方論』의 내용

平人氣象論에 曰 尺脈緩澹을 謂之解休이라하니라. 夫尺은 腎部也라. 緩은 似遲而非遲라. 但遲以至數言이요 緩以形體言耳라. 往來難하야 時一止를 曰澹이라. 尺脈緩澹을 病名曰解休이라하니 言解倦之極也라. 太僕이 曰寒不寒하고 熱不熱하며 弱不弱하고 壯不壯하야 停不可名을 謂之解休이라하니라. 張少谷曰停은 困弱也라.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9.
35)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靈樞).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p.419.
36)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121.

37)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9.
3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7.

百合湯(方用百合一味니 故로 名이라.)
右用水二鍾하여 煎八分하여 不拘時服이라. 39)

『平人氣象論』에 가로되 尺脈이 緩濇함을 懈体이라 한다고 하였다. 무릇 尺은 腎의 부위이다. 緩脈은 遲脈과 비슷하나 遲脈이 아니다. 다만 遲脈은 맥이 이르는 數로서 말한 것이고 緩脈은 脈의 형체로써 말한 것일 뿐이다. 往來가 어렵고 때로 한 번 쉬는 것을 濇脈이라 한다. 尺脈이 緩濇한 病을 懈体이라 이름하니 늘어지고 게을러짐이 지극함을 말한다. 太僕이 가로되 추운 듯하나 춥지 아니하고 뜨거운 듯하나 뜨겁지 않으며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고 씩씩한 것 같으나 씩씩하지 않아서 困倦하여[傳] 가히 이름할 수 없음을 懈体이라 이른다 하고 하였다. 張少谷이 가로되 ‘傳은 困弱함이다’라고 하였다.

百合湯(처방에 百合 單味를 사용하므로 그렇게 이름하였다.)

위의 약을 물 2잔으로 달여서 8분이 되도록 하여 때에 구애하지 않고 복용한다.

【小考】

『內經拾遺方論』에서는 解体的 脈은 『平人氣象論』의 내용을 따랐고, 原因은 腎病이라 하였고, 證狀은 王水의 註釋에 따라 “추운 듯하나 춥지 아니하고 뜨거운 듯하나 뜨겁지 않으며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고 씩씩한 것 같으나 씩씩하지 않아서 困倦하여[傳] 가히 이름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治療로는 百合 單味の 百合湯을 제시하였다.

8. 『黃帝素問宣明方論』의 내용

冬脈太過 緩而濇 腎實精不運 解者緩 体疑寒熱類也 利腎湯主之 治解体春脈動 氣痛氣乏 不欲言 此爲 腎元有餘矣

澤瀉 生地黃 赤茯苓(去皮) 各一兩半 檳榔 麥門冬(去心) 柴胡 枳殼(麩炒 去穰) 牛膝(去苗 酒浸) 各一兩 黃芩(去朽) 一兩

上爲末 每服三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溫服 不計時候40)

冬脈이 太過하여 緩하면서 濇하면 腎實하여 精이 運行하지 않는 것이다. 解는 늘어지는 것이고 体은 의심컨대 寒熱의 類이다. 利腎湯으로 주한다. 解体에 春脈이 動하고 氣痛 氣乏하여 말하고자 하지 않으니 이는 腎元이 有餘한 것이다.

利腎湯

澤瀉 生地黃 赤茯苓(去皮) 各一兩半 檳榔 麥門冬(去心) 柴胡 枳殼(麩炒 去穰) 牛膝(去苗 酒浸) 各一兩 黃芩(去朽) 一兩

이상을 분말하여 매번 3錢을 복용하되 물 1잔 반으로 달여서 7분에 이르게 하며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하되 복용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小考】

『黃帝素問宣明方論』에서는 解体的 脈에 대해서 『平人氣象論』과 『玉機眞藏論』의 내용을 합하여 “冬脈이 太過하여 緩하면서 濇하다.”라고 하였고, 解体的 原因은 그 冬脈 太過에 따라서 腎實하여 精이 運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고, 證狀은 解는 늘어지는 것이고 体은 의심컨대 寒熱의 類이라고 하였고, 治療는 利腎湯을 제시하였다. 利腎湯의 方劑 意義는 澤瀉, 赤茯苓으로 利水하면서 生地黃으로 腎水가 모손되는 것을 보충하고, 檳榔, 牛膝, 枳殼으로 利水가 잘 되도록 下氣하고, 麥門冬, 柴胡, 黃芩으로 清熱하는 것이다.

9. 『醫學入門』의 解体에 대한 설명

(腎)不寒不熱이니 病難名이라.(尺脈緩濇을 謂之 解体이라하니 怠倦至極也라. 緩爲熱中이요 濇爲無血이니 熱而無血하며 寒不寒하고 熱不熱하여 病不可名이라. 下虛極而挾外感이라.)41)

(腎)寒症도 아니고 熱症도 아니어서 病을 이름하기 어렵다.(尺脈이 緩濇함을 解体이라 이르니 권태로

39) 駱龍吉. 內經拾遺方論(影印本). 出版社 未詳. 發行年度 未詳. pp.26-27.

40) 東醫文獻研究室.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66.

41) 李槤.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415.

움이 지극하다. 緩脈은 熱中이고 瀼脈은 血이 없음이니 熱이 나면서도 血이 없으며 촉계 느끼나 寒症이 아니고 뜨겁게 느끼나 熱症이 아니어서 병을 가히 이 름할 수 없다. 下虛가 極한 데에 外感을 낀 것이다.

內傷挾外感者는 先因飲食勞役過度하여 身痛腰腿酸軟하니 而其體已解休이라. 又感冒風寒에 外證이 全類傷寒이나 但右手氣口와 及關脈이 大於左手人迎 一二倍하니 此는 內傷重 而外感輕也라. 治以補中益氣湯커나 或調中益氣湯호대 隨六經見證加減이라. 誤作傷寒하여 大發其汗者는 死라.⁴²⁾

內傷이 外感을 낀 경우는 먼저 飲食, 勞役이 과도 함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허리와 大腿가 시리고 힘이 없으니 그 몸이 이미 解休한다. 또한 風寒에 感冒하였을 때 外證이 모두 傷寒과 같으나 다만 右手의 氣口와 關脈이 左手의 人迎보다 1,2배 크니 이는 內傷이 重하고 外感이 가볍다. 치료는 補中益氣湯 또는 調中益氣湯으로 하되 六經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加減한다. 만약 잘못해서 傷寒으로 봐서 크게 그 땀을 發하는 경우는 죽는다.

解休은 出內經이라. 解者는 肌肉解散이요 休者는 筋不束骨이라. 其證이 似寒 非寒하고 似熱 非熱하며 四肢骨節이 解散怠惰煩疼하고 飲食不美라. 或因傷酒 커나 或中濕커나 或感冒風寒커나 或房事過多커나 或婦人經水不調하니 似砂病而實非砂也라. 治宜通其氣血하고 疎其腠理호대 以內傷兼外感藥으로 調之라. 輕者는 從俗刮砂하니 刺十指及委中穴이라. 砂證은 類傷寒하니 見雜病蠱瘴이라.⁴³⁾

解休은 『內經』에서 나온다. 解라는 것은 肌肉이 解散하는 것이다. 休이란 것은 筋이 骨을 묶지 못하는 것이다. 그 증상이 寒과 같으나 寒이 아니고 熱과 같으나 熱이 아니며 四肢 骨節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번거롭고 아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 혹 飲酒로 傷하거나 혹은 中濕하거나 혹은 風寒의 感冒나 혹은 房勞의 過多 혹은 婦人의 經水의 不調和로

인하니 砂病과 비슷하나 砂病이 아니다. 치료에는 마땅히 그 氣血을 통하게 하고 그 腠理를 성기게 하되 內傷에 外感을 兼하는 藥으로 調理한다. 가벼운 경우는 世俗의 刮砂法을 따르니 十指 및 委中穴을 刺鍼한다. 砂證은 傷寒과 유사하니 雜病의 蠱瘴에 나타난다.

【小考】

『醫學入門』에서 解休의 脈은 「平人氣象論」의 내용에 따라서 “尺脈이 緩瀼하다.”라고 하였고, 原因은 熱中에 無熱로서 下虛가 極한데다가 外感을 낀 것이라고 하였고, 證狀은 寒症도 아니고 熱症도 아니어서 병을 이름하기 어려우며 권태로움이 지극하다고 하였고, 治療는 “마땅히 그 氣血을 통하게 하고 그 腠理를 성기게 하되 內傷에 外感을 兼하는 藥으로 調理한다. 가벼운 경우는 世俗의 刮砂法을 따르니 十指 및 委中穴을 刺鍼한다.”라고 하였다.

10. 『東洋醫學大辭典』의 解休에 대한 설명⁴⁴⁾

1) 定義

身體 중 肌肉이 解散하여 筋이 束骨하지 못하는 증상

2) 文獻根據

『素問·平人氣象論』 “尺脈緩瀼 謂之解休”
『靈樞』 “刺骨 無傷髓 髓傷則銷鑠筋酸 體解休然不去矣”

3) 解說

이 증상은 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이 아니고 寒이 있는 것 같으나 寒이 아니며, 骨節이 解散하고 게을러지고 번거롭고 아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으니, 모두 肝腎 二經의 虛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개 肝은 筋을 主하니 虛하면 筋이 軟弱해지고 늘어지고 無力하여 束骨하지 못하므로 전신 肌肉이 모두 解散하여

4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5.

4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6.

44) 史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1962. p.922.

풀어지는 것 같고, 腎은 骨을 主하니 虛하면 骨이 시 들고 마르게 되어 능히 스스로 굳세지 못하므로 전신의 百節이 모두 성기고 늘어져서 나른하게 된다.

4) 治法

- ① 마음이 게을러지고 늘어져서 어디가 괴로운지 알지 못하면 遐齡萬壽丹 혹은 神仙既濟丹이 마땅하다.
- ② 酒傷으로 인한 경우 葛花解毒湯이 마땅하다.
- ③ 中濕으로 인한 경우 加味朮附湯이 마땅하다.
- ④ 風寒 感冒인 경우 羌活沖和湯이 마땅하다.
- ⑤ 婦人이 月經이 고르지 못하여 解体이 오는 경우는 加味逍遙散이 마땅하다.

Ⅲ. 考 察

解体的 脈에 대해서, 모든 醫家들이 『素問』의 「平人氣象論」의 “尺脈緩濇”을 따르되 다만 『素問今釋』에서는 尺脈緩濇에서 緩을 脈象으로 해석하지 않고 尺部의 皮膚가 弛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醫學入門』에서는 “다만 右手의 氣口와 關脈이 左手의 人迎보다 1,2배 크다.”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解体的 原因에 대해서 『素問』의 「平人氣象論」의 “尺脈緩濇”과 「玉機真藏論」의 “冬脈……太過”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腎과 腹의 熱中(緩脈)과 無血(濇脈)

王冰이 「平人氣象論」에서는 脈은 陰部로서 腎과 腹이 主하고 緩濇함은 緩은 熱中이며 濇은 無血이니 尺脈이 緩濇함은 腎과 腹에 熱中의 狀態로서 無血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2) 氣衰와 血少

張介賓은 緩濇에 대해 緩은 氣衰이며 濇은 血少라고 해석하였다.

3) 脾氣衰少

張志聰은 緩은 脾脈이며 濇은 藏氣가 부족함이니 解体的 原因이 脾臟의 病이라고 해석하였다.

4) 氣血不足

또한 「四時刺逆從論」에서 王冰은 氣血衰少로, 張志聰은 氣血內竭로, 『今釋』은 氣血耗竭로 보았다.

5) 腎陽虛

張介賓은 “冬脈이 太過하면 陰邪가 이김이다. 陰邪가 이기면 腎氣가 傷하고 眞陽이 虛하게 한다.”고 하였다.

6) 陰虛

張介賓은 『靈樞』의 「論疾診尺論」에서 “尺脈이 弱한 자는 肌肉이 반드시 消燼하여 마른다. 肌肉이 마름은 陰虛이니 마땅히 解体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7) 腎實 精不運

『黃帝素問宣明方論』에서는 “冬脈이 太過하여 緩하면서 濇하면 腎實하여 精이 運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8) 下虛(腎虛)에 外感을 兼함

『醫學入門』에서는 “內傷이 外感을 낀 경우는 먼저 飮食, 勞役이 과도함으로 인한다. …… 혹은 飮酒로 傷하거나 혹은 中濕하거나 혹은 風寒의 感冒나 혹은 房勞의 過多 혹은 婦人의 經水의 不調로 인하니 砂病과 비슷하나 砂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9) 肝腎 二經의 虛損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모두 肝腎 二經의 虛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개 肝은 筋을 主하니 虛하면 筋이 軟弱해지고 늘어지고 無力하여 束骨하지 못

하므로 전신 肌肉이 모두 解散하여 풀어지는 것 같고, 腎은 骨을 主하니 虛하면 骨이 시들고 마르게 되어 능히 스스로 굳세지 못하므로 전신의 百節이 모두 성기고 늘어져서 나른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解體의 原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解體에 대한 諸家들의 이해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재는 대체로 『東洋醫學大辭典』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데, 肝腎의 虛損은 『素問』 「平人氣象論」의 “尺脈緩澹”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醫學入門』의 疾病觀은 항상 外感과 內傷을 구분하는 데에 특징이 있는데, 解體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診脈」에서는 “腎脈”에서 解體를 소개하였으며 그 원인을 “下虛極”이라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東洋醫學大辭典』의 설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病證의 분류는 원인과 적절히 부합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下虛가 極한 상태에서 外感, 內傷 등을 挾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解體의 證狀에 대해서 대체로 王冰의 「平人氣象論」의 註釋을 따라서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약하지 않으며 긴장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긴장하지 않아서 괴로워서 이름 지을 수 없음을 解體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나, 馬蒔는 王冰의 註釋의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약간의 異議를 제기하여 “「刺瘡論」의 ‘足少陽의 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身體가 解體하게 하니 寒症이라도 심하지 않으며 熱症이라도 심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근본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王冰의 註釋인 “寒不寒 熱不熱”의 증상을 따랐다.

그러나 張介賓은 「自瘡論」에 이미 “身體가 解體한다.”고 하고 다시 “寒이 심하지 않고 熱이 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이른 바가 각각 있으니, “寒不甚 熱不甚”은 解體의 證狀으로 보지 않고 足少陽의 瘡의 證狀이므로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다.”라는 症狀은

解體의 證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醫學入門』에서는 “寒症도 아니고 熱症도 아니어서 병을 이룸하기 어렵다. …… 熱이 나면서도 血이 없으며 춥게 느끼나 寒症이 아니고 뜨겁게 느끼나 熱症이 아니어서 병을 가히 이룸할 수 없다. 內傷이 外感を 낀 경우는 먼저 飲食, 勞役이 과도함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허리와 大腿가 시리고 힘이 없으니 그 몸이 이미 解體한다. …… 解라는 것은 肌肉이 解散하는 것이다. 休이란 것은 筋이 骨을 묶지 못하는 것이다. 그 증상이 寒과 같으나 寒이 아니고 熱과 같으나 熱이 아니며 四肢 骨節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번거롭고 아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解體이란 身體 중 肌肉이 解散하여 筋이 束骨하지 못하는 증상으로서 …… 이 증상은 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이 아니고 寒이 있는 것 같으나 寒이 아니며, 骨節이 解散하고 게으르고 늘어지고 煩疼하며 음식이 맛있지 않다. …… 대개 肝은 筋을 主하니 虛하면 筋이 軟弱해지고 늘어지고 無力하여 束骨하지 못하므로 전신 肌肉이 모두 解散하여 풀어지는 것 같고, 腎은 骨을 主하니 虛하면 骨이 시들고 마르게 되어 능히 스스로 굳세지 못하므로 전신의 百節이 모두 성기고 늘어져서 나른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醫學入門』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王冰이 註釋한 證狀 이외에 “四肢 骨節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번거롭고 아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는 증상을 첨가하였다. 이는 前人の 未發을 발명한 것이다. 특히 서적의 저술 시대로 따지면 『東洋醫學大辭典』에 나타난 證狀은 『醫學入門』의 내용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解體의 治療에 대해서 『內經』의 註釋家들은 별다른 치료를 언급하지 않았고, 『內經拾遺方論』에 와서 비로소 百合 一味의 百合湯을 제시하였고, 『黃帝素問宣明方論』에서는 利腎湯을 제시하였는데, 그 方劑 意義는 澤瀉, 赤茯苓으로 利水하면서 生地黃으로 腎水

가 모손되는 것을 보충하고, 檳榔, 牛膝, 枳殼으로 利水가 잘 되도록 下氣하고, 麥門冬, 柴胡, 黃芩으로 清熱하는 것이다.

『醫學入門』에서 解体の 치료에 대해서 “補中益氣湯 또는 調中益氣湯으로 하되 六經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加減한다. 만약 잘못해서 傷寒으로 봐서 크게 그 땀을 發하는 경우는 죽는다. …… 혹 飲酒로 傷하거나 혹은 中濕하거나 혹은 風寒의 感冒나 혹은 房勞의 過多 혹은 婦人의 經水의 不調로 인하니 砂病과 비슷하나 砂病이 아니다. 치료에는 마땅히 그 氣血을 통하게 하고 그 腠理를 성기게 하되 內傷에 外感을 兼하는 藥으로 調理한다. 가벼운 경우는 世俗의 刮砂法을 따르니 十指 및 委中穴을 刺鍼한다. 砂證은 傷寒과 유사하니 雜病의 蠱瘴에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肝腎의 虛損을 原因으로 지적하면서도, “마음이 게을러지고 늘어져서 어디가 괴로운지 알지 못하면 遐齡萬壽丹 혹은 神仙既濟丹이, 酒傷으로 인한 경우 葛花解毒湯이, 中濕으로 인한 경우 加味朮附湯이, 風寒 感冒인 경우 羌活沖和湯이, 婦人이 月經이 고르지 못하여 解体이 오는 경우는 加味逍遙散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治療으로는 “마땅히 그 氣血을 통하게 하고 그 腠理를 성기게 하되 內傷에 外感을 兼하는 藥으로 調理한다.”라고 하였는데, 內傷을 치료하는 藥으로는 補中益氣湯 또는 調中益氣湯을 제시하였고 外感을 치료하는 약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病證을 혹 飲酒로 傷하거나 혹은 中濕하거나 혹은 風寒의 感冒나 혹은 房勞의 過多 혹은 婦人의 經水의 不調로 因한다고만 분류하는데 그쳤으나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病證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IV. 結論

『素問』의 註釋書와 『醫學入門』 등을 중심으로 解体の 脈, 原因, 證狀, 治療에 대해 比較·考察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解体이라는 病名은 『素問』과 『靈樞』에 처음 나타나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脈因證治가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解体の 脈은 모든 醫家들이 『素問』의 「平人氣象論」의 “尺脈緩濇”을 따르되 다만 『素問今釋』에서는 尺脈緩濇에서 緩을 脈象으로 해석하지 않고 尺部の 皮膚가 弛緩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다만 右手의 氣口와 關脈이 左手의 人迎보다 1,2배 크다.”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解体の 原因에 대해서 ① 腎과 腹의 熱(緩脈)과 無血(濇脈), ② 氣衰와 血少, ③ 脾氣衰少, ④ 氣血不足, ⑤ 腎陽虛, ⑥ 陰虛, ⑦ 腎實 精不運, ⑧ 下虛(腎虛)에 外感을 兼함, ⑨ 肝腎 二經의 虛損으로 細分할 수 있고, 大別하면 肝腎의 虛損과 脾氣의 衰少로 볼 수 있다.

3. 解体の 證狀에 대해서 대체로 王冰의 「平人氣象論」의 註釋을 따라서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약하지 않으며 건장하다고 느끼나 실제로는 건장하지 않아서 괴로워서 이를 지을 수 없음을 解体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4. 解体の 證狀 중에서 張介賓은 “춥다고 느끼나 실제로 寒症이 아니며 뜨겁다고 느끼나 熱症이 아니다.”라는 症狀은 解体の 證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5. 解体的 證狀에 대해서 『醫學入門』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王冰이 註釋한 證狀 이외에 “四肢 骨節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번거롭고 아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는 증상을 첨가하였다.

6. 解体的 治療에 대해서 『內經』의 註釋家들은 별

다른 치료를 언급하지 않았고, 『內經拾遺方論』에 와서 비로소 百合湯을 제시하였고, 『黃帝素問宣明方論』에서는 利腎湯을 제시하였다.

7. 解休의 治療에 대해서 『醫學入門』은 “그 氣血을 통하게 하고 그 腠理를 성기게 하되 內傷에 外感を 兼하는 藥으로 調理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8. 解休의 治療에 대해서 『東洋醫學大辭典』은 “마음이 게을러지고 늘어져서 어디가 괴로운지 알지 못하면 遐齡萬壽丹 혹은 神仙既濟丹이, 酒傷으로 인한 경우 葛花解毒湯이, 中濕으로 인한 경우 加味朮附湯이, 風寒 感冒인 경우 羌活沖和湯이, 婦人이 月經이 고르지 못하여 解休이 오는 경우는 加味逍遙散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病證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종합의서에는 解休이라는 病名이 없는데, 아마도 포괄적인 다른 病證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內經』과 그 註釋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변천된 내용까지 파악해야 더욱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1. 東醫文獻研究室.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2. 駱龍吉. 內經拾遺方論(影印本). 出版社 未詳. 發行年度 未詳.
3.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中國 台聯. 國風出版社. 年度未詳.
4. 朴晷 等. 素問研究集成.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1.
5. 朴晷 等. 靈樞研究集成.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6.
6. 史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1962.
7.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素問今釋.

- 中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8.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 대전. 周珉出版社. 2003.
9.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中). 대전. 周珉出版社. 2003.
1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11.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0.
12.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90.
13.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7.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